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0年10월1일 (목) 제 799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영철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설교

환난 중에도 즐겁다

<로마서 5:1-4>



임선형 목사 (동경제일교회)

본문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겁다’ 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다 마치면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주인과 종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환난중에 즐겁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쁘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6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치 아픈 일이 많다.’ 그래야 내 영혼에 좋은가 보다 나를 더욱 기도, 찬양, 간구하게 하시는구나 아~감사하구나. ‘누가 내 돈을 가져갔다.’ 그 돈 내게 있으면 안되나 보다,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감사하구나. ‘실수했다’ 난 너무도 연약하구나!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감사 감사하구나. ‘열 받는다’ 주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와 약점으로 괴롭다?’ 이런 일들이 늘 나를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 감사하구나.

성경은 우리가 약속을 믿고 감사히 살아갈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그 약속을 믿고 살다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밝은 얼굴로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옳다, 그러다를 나누면 어느덧 하나님 은혜가 나를 떠나버립니다 기쁨, 평강이 없고 내 영혼이 점점 죽게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이란 말은 헬라어에

서 ‘아래에서 짓눌려 멩게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 가운데서 친히 허락하신 ‘은혜’ 임을 알아 갑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감사 충만, 기쁨 충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갑시다.

똑같은 고난, 질병, 사고이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축복이요 모르는 사람에겐 저주가 되겠지요. 고난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고 우리에게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연단의 과정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길러진 감사와 보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 모두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무슨 차이로 다를까요? 요즘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간증들을 전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행복을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 행복이며 주님 만난 우리 삶이 행복인데 그걸 모른다면 그의 앞날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행복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치료제가 있다 해도 진짜 보약은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빌립보서4장4~7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언행하여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환난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오직 은혜, 오직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도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은 ‘모든 일이 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國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總會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제1회 상임위원회 개최

코로나 영향으로 리모트 회의로 열어

지난 4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제55회기 제1회 상임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연기되어, 지난 9월29일(화)에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당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가진 회의 장소는 大阪교회에서 趙永哲총회장, 中江洋一부총회장, 梁榮友서기, 金柄鎬총간사 및 大阪교회 인근의 몇몇 위원이 모였고, 대부분의 위원은 각 가정 혹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趙永哲총회장의 개회예배 설교에 이어, 정회원 24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각종 보고 및 중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보고는 사전에 우송한 보고서를 문서로 받기로 하였으며, 선교위원회가 10월11일(주일) 19:00-21:00에 코로나 시대의 KCCJ 선교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Zoom토론회를 가진다는 것과, 신학교시위원회가 전날(9월28일)에 가진 전도사 고시 및 선교사 가입 고시에 대하여 선교사1명이 합격한 것과 전도사 2명이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12월8일에 설교 시험을 가진다는 보고를 하였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회 결정사항의 사후 승인의 건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4월 14일 예정이었던 제1회 상임위원회의 중지 및 연기, Zoom회의로 개최하는 건, 浪速교회와 豊中第一復興교회가 요청한 종교법인 설립 요청에 관한 건을 승인했다.
- (2) 찬송가위원회가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원 보충 요청에 대하여 金伸禹목사와 金聖泰목사(추천)를 승인했다.
- (3) 西南KCC가 요청한 이사 증원 승인 요청 건은, 趙顯奎목사, 李

恩玉권사를 승인했다.

- (4) 서부지방회가 요청한 西宮교회 및 姫路藥水교회의 선교부담금 감면 요청의 건은, 재정위원회로부터 <타 교회와 지방회와의 공평성이 없어진다> 라는 견해를 받아 지방회가 책임을 지고 교회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여 부결되었다. 또한 총회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위원회가 과거의 각종 회의록을 정밀히 조사하여 장래적으로 재정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같은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 (5)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가 요청한 제9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 의 명칭 <한/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는 한국/조선/일본 기독교자 회의> 로의 변경 요청의 건은,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여 차기 상임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했다.
- (6) 캐나다연합교회로부터 KCCJ에 주어지는 케피탈 프로젝트 기금 24,000,000엔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임원회가 제안한, 관리하는 총간사(사무국)가 하고 운영은 총간사와 임원회가 상의하여 하고 상임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감사를 받고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 (7)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지방회 정기총회 및 상임위원회, 정기총회에 관한 규칙 추가의 건은, 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회의가 개최되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에 의한 회의도 할 수 있다는 헌법 혹은 규칙에 부가할 것을 헌법위원회에 위탁하여, 차기 상임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했다.
- (8) 차기, 제56회 정기총회의 일정에 관한 건은, 2021년10월10일(주일) 18:00-12일(화)17:00, 장소는 東京교회로 승인 했다.
- (9) 2020년도 결산 보고서를 승인하고, 2021년도 예산안은 수지의 차액을 조정하고 승인했다.
- (10) 차기 상임위원회는 2021년4월6일(화), 11:00~18:00, KCC(大阪)에서 가지기로 했다.

青年大会全協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리모트로 행하며乾春紀씨를 신회장으로 선출



9월26일(토) 9시부터 청년회 전국협의회 제58회 정기총회가 ZOOM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총회 신도위원장 이명충목사로 부터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3:17~19)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다.

총회는 2019년도 활동내용, 총괄보고를 각 부, 각지방, 각 담당자로부터 받고 신 임원 선거에 들어가, 2020년도 대표에는 이누이 하루키 (乾春紀/豊橋教会), 부대표에 야나기마치 시즈에 (柳町静江/横浜教会), 총무/서기에 야나기마치 사토시 (柳町聡/横浜教会) 필두로, 그 외에 5명의 청년이 각 부를 맡게 되었다.

폐회예배에는 김용소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34:2~4)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폐회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1년을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새롭게 섬겨나갈 것이다.

(보고 : 이누이 하루키)

선교사 가입고시, 전도사 고시 실시

선교사 1명, 전도사 2명이 고시 받아

신학교시위원회(위원장:김성효목사)가 주관하는 선교사 가입 고시 및 전도사 고시가 치러졌다. 적은 인원의 지원자였지만 선교사1명, 전도사 2명이 지원하였다.

선교사 가입 고시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에서 파송 받아 중부지방회 치쿠마비전전도소에서 목회하게 되는 김형진목사가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전도사 고시에는 관동지방회 한사랑교회 장성신학생, 관서지방회 후세교회 함미라신학생이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고 12월8일의 설교시험을 남겨두고 있다.

신학생 선교사 연수회 개최

3월에 열지 못해 리모트로 개최, 4명 참가

3월에 예정했던 선교사, 총회신학생 연수회가 9월6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10일(목)까지, 리모트 연수회로 가져 선교사 1명, 신학생 3명이 참가했다.

교육과목으로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신학과 선교 이념, 역사, 헌법과 규칙, 재일동포 역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 일본기독교회의 신학과 교회사, 에큐메니칼 신학,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의 목회 전반, 예식, 예전 등의 강의를 있었다.

금번 연수회에 참가한 연수생은 김형진목사(백석, 치쿠마비전전도소), 이은주신학생(한사랑교회), 장성신학생(한사랑교회), 함미라신학생(후세교회), 정시온신학생(오사카교회)이었다.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聖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특 집 신형코로나19의 감염 위기와 교회 예배 현상

관동지방회 동경제일교회 임선형 목사

6월부터는 밀집되지 않도록 자리를 비워서 다시 회집하고, 예배는 인원을 분산하고 지정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은 주말에 소독하고, 예배 시간 사이마다 소독, 출입시에는 손소독을 합니다. 예비 마스크도 준비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회도 안 하고, 다른 모임도 다 없고 즉시 귀가합니다.

예배에 따른 문제점은 예배에 60%의 신도들만 참석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여전히 전염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신도들에게 매일 보내는 성경묵상을 지속하고,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신도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지출을 조정하면서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관동지방회 시나가와교회 강장식 목사

3월 코로나사태가 시작된 후, 주일 1부 일본어예배, 2부 한국어 예배는 계속되되, 유튜브채널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권하였지만, 교회 주변 몇몇 교우는 교회로 모였고, 간단한 식사교제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는 계속하였고, 교회학교는 예배 동영상을 편집 제작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면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는 교우가 늘면서 현재는 80% 정도가 교회 예배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고, 1,2부 예배의 온라인 중계를 계속하고 있고, 교회학교도 교회에서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말씀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활동인 어린이식당은 도시락 제공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문화선교활동 등과 성경공부 모든 모임은 중단하였다가 9월부터는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각 모임을 재개하였습니다. 올 해는 교회창립60주년 행사(전교인 수양회, 강연과 콘서트 등)를 취소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못 오고 있지만, 소모임과 온라인을 통한 교제가 활성화 되면서, 교회는 활기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방역과 소독을 우선함으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예배와 성경공부, 지역사회봉사가 축소된 규모라도 계속되고 있고,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회 오가키교회 채은숙 목사

예배를 어떻게 할지 제직회를 통해 신도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후 애찬은 중지하였으며 교회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6주 정도 애찬 없이 예배만 드렸으나 부활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각자의 이웃에게 드릴 부활절 계란도 나누었습니다. 애찬은 5월 연휴 이후에 재개했습니다.

주일예배 이외의 활동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미우라야야코 독서회는 계속 했습니다. 교회 주위분들과의 교제인 茶話會와 한글교실은 두 달 쉬고 6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오가키교회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의하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교세가 작고, 오가키 지역에 코로나 감염자의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신경을 쓰며 주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

은 점점 더해져 갑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관서지방회 교토히가시아마교회 이승후 목사

4월부터 6월까지 주일 일본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는 LINE을 이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7월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은 신도들의 헌신으로 인해 평소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신도들을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묵상한 말씀을 LINE으로 보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온라인 예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책으로서,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와 기도회,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방회 미요시교회 이상덕 목사

4월에 미요시 시의 집단감염 발생과 동시에 4월 12일~5월 24일까지 예배를 쉬었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를 가정예배가 가능한(설교문을 포함한) 형태로 바꾸어 각 신도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5월 31일(성령강림절)~현재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나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주일예배만 성만찬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소독젤을 손에 바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나 설교자가 서는 강단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말할 수 있도록, 아크릴 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배출석은 강요하지 않고, 불출석 신도에게는 주보와 설교문을 오후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남지방회 우베교회 이혜란 목사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지속하는 현실 가운데에도 우베는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큰 은혜를 입고 매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연세드신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형편상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신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있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매주 마스크 착용과 소독을 실시하고, 강대상 앞에는 웨이스 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예배가 끝난후에도 모든 곳을 소독하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베지역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예배는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재정적으로는 전임 목사의 은퇴와 함께 6명의 신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예산은 절반이 줄어들었고, 현재로서는 전도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우베는 생산적 도시도 아니고 젊은 세대뿐 아니라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시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전도의 양적 부흥과, 수임원이 없는 신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현금의 감소를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및 영상예배의 준비등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에서 지원금 총회 프로젝트 지원금으로서 2400만엔

오랫동안 일본선교에 종사해 왔던 캐나다 연합교회(UCC)는 일본에 산재해 있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일본의 관계있는 교단 및 기관에 지원금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는 캐피탈 프로젝트(총회 사업) 지원금으로 24,000,000円을 받게되었다. (참고로 RAIK에는 14,000,000円,마이너지서교센타에는 42,000,000円)

이것은 현재 총간사가 취임되지 얼마되지 않았던 2013년11월에 UCC의 재무 담당자가 와서 일본기독교단,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KCCJ총간사와 협의하면서, 「UCC는 향후 10년간 일본에 있는 UCC재산을 정리하여 관계교단, 기관 등에 분배할 계획이다. 단 개척교회나 교회당 건축 등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사회를 향한 선교활동, 약자를 위한 활동, 그러기 위한 인재양성 등에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그 후 7년이 지나면서 금년에 KCCJ가 큰 금액을 향후 3년간 나누어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게되는 교섭 회의에,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래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 하여 UCC로부터 승인을 얻게 되었다.

○향후 10년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사용하기를 원한다.

(1)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하여 (8,000,000円)

장래 KCCJ를 젊어지고 갈 에큐메니칼적인 마인드와 신학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해외 어학연수, 에큐메니칼 기관에 인턴 프로그램과 유학을 위하여.

(2) <한/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는 韓/朝/日 기독교 회의> 를 위하여 (8,000,000円)

KCCJ는 1989년 부터 (북)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과의 교류를 해 오면서 한국교회와 KCF의 만남의 장을 일본에서 가져왔다. (1990년~2002년, 8회) 제9회를 계획하고 있다. KCCJ가 축이 되어 한국교회, KCF, 일본교회와 함께 한/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2년~3년 간격으로 가지기 위하여.

(3) 교역자 계속교육을 위하여 (5,000,000円)

변해 가는 교회의 상황과 신학적 흐름 가운데, 교회를 목회하는 교역자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교역자 1명이 5년에 1회 의무적으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4) 각종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을 위하여. (3,000,000円)

KCCJ가 주최하는 선교협력교단과의 선교적 프로그램을 위하여. 선교협력교단에서 초청받은 선교적 프로그램에 인재과견을 위하여.

박헌욱목사가 서적을 출판

도쿄신학대학에서 25년간 교수로서 신학교육에 종사하다 금년 3월에 정년퇴직한 박헌욱목사가 이번에 「현대기독교교육학 연구-신학과 교육 사이-」란 서적을 출판했다.

現代キリスト教教育学研究
神学と教育の間で

朴 憲 郁
Park Heon-Wook



東京神学大学で25年キリスト教教育関連・特講を講じ多くの神学生達との間に用いた著書に基き、聖書神学・教育論、キリスト教と教育、教育者養成、人間形成など多岐にわたる観点からキリスト教教育を論じた精選論文集。【硬貨 1500円】

公 告

利害関係者及び信者各位
 本法人は下記の不動産を担保に、教会堂新築にかかる費用として、下記金融機関より融資を受けることを公告します。

- 土地 神奈川県川崎市桜本一丁目8番22 421.90㎡
- 鉄筋造陸屋根 4階建
- 金融機関 川崎信用金庫 大島支店
- 融資金額 3億5千万円

2020年 8月30日
 在日大韓基督教会川崎教会 李明忠

2019년도 청년회전국협의회 하기 수양회 감상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야나기마치 사토시 (청년회전국협의회 섭외부)

<역경에서 출발>

2020년8월8일 토요일 재일 대한 기독교 요코하마 교회를 기점으로 한 청년회전국협의회 (전협) 주최한 하계 수양회가 열렸다. 일본, 한국 그리고 독일이라는 제 3국을 포함한 38명의 청소년과 2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세계에서 만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ZOOM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예년과는 전혀 다른 수양회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수양회 준비 기간 동안, 우리 임원 8명은 불안속에서 준비하며 수양회 당일을 맞이했다.

<역경 속에서도 계승되어가는 유산>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참여 해주신 청년들, 그리고 항상 바쁘신 중에서도 수양회에서 설교를 해주신 요코스카교회 김신야목사님, 요코하마교회 이명충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인 희생을 바친 사랑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유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임원의 걱정은 뒷전으로, 수양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 "형제애" 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임원 1명과 청년 5명이 한 그룹이 되어, 형제애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진 것은 자신에게도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며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유다를 통해 새로운 율법을 주신 예수님 (요한 13:31-35)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는 "사랑" 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용서" 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점이자 정점이기도 한 부분, 이 두점을 배울 수 있었던 기쁨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